



‘이영표 사장·박지성 단장’ 이런 그림 언제쯤...

정치적 입김 강한 시민구단 ‘외풍’ 영향 기업구단, 비전문가가 단기성과만 노려 프로야구와 달리 선수출신 설 자리 좁아 젊고 유능한 축구자원 행정가 데뷔 필요

올 시즌 국내 프로야구(KBO리그)의 특징 중 하나는 선수출신 단장의 선전이다. KBO리그 10개 구단 중 선수출신 단장은 6명이다. 이들이 맡은 구단들이 순위표 윗 자리를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선수출신 단장이 늘어나면서 그 흐름은 어느 새 추세가 됐다.

물론 성적이 좋다고 모든 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어디에나 장단점은 있다.

선수경험을 구단운영에 접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다. 선수 보는 눈, 상황 판단력, 정보력에서 전문 경영인 출신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 선수단과의 소통도 뻗을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운동선수 선후배라는 점은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공사의 구분이 중요하다. 자칫 간섭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 아무튼 KBO리그는 선수출신 단장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애경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웃동네 프로축구(K리그)의 상황은 어떨까.

K리그1 12개 구단과 K리그2 10개 구단으로 구성된 K리그에서 선수출신 사장 및 단장은 모두 5명이다. K리그1에는 대구 조광래 사장이 유일하다. K리그2에는 대전 김호 사장, 부산 최만희 사장, 광주 김영욱 단장, 안양 임은주 단장 등이 있다.

K리그는 KBO리그와 달리 모든 구단에 사장과 단장이 있는 게 아니다. K리그1에서 사장과 단장이 함께 있는 구단은 강원, 서울, 수원, 인천, 전북, 포항 등 6개 구단이다. 경남, 대구, 상주, 울산, 전남, 제주 등은 사장이 단장 역할을 겸한다. K리그2에서는 광주, 부천, 수원FC, 안산 등 4개



이영표



박지성

K1 구단	대표 (사장)	단장	K2 구단	대표 (사장)	단장
강원	조태룡	이승섭	광주	정원주	김영욱
경남	조기호	-	대전	김호	-
대구	조광래	-	부산	최만희	-
상주	백만출	-	부천	정해춘	김종구
서울	엄태진	이재하	서울E	김현수	-
수원	박찬형	박청수	성남	윤기천	-
울산	김광국	-	수원FC	김춘호	이의택
인천	강인덕	김석현	안산	박성관	-
전남	신승재	-	안산	김필호	박공원
전북	이광국	백승권	안양	-	임은주
제주	안승희	-			
포항	양홍렬	장영복			

구단이 사장과 단장이 함께 일한다. 물론 사장들 중엔 비상근인 경우가 더러 있다. 임원 구성이 중요한 건 그들의 능력이 K리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K리그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구단에 대한 애정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선수출신의 경우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K리그의 판을 키우기 위해 비선수출신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K리그는 크게 기업구단과 도시민구단으로 나뉜다. 기업구단은 대부분 모기업 출신 임원이 책임자다. 그나마 선수출신은 도시민구단에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시장 또는 도지사가 구단주인 도시민구단은 정치적인 입김이 강한 곳이다. 선거결과와 외풍은 동의어다. 진영논리가 K리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됐다.

최근 경남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도 정치적인 색깔이 배경이다. 지방선거 이후 자신을 낙점했던 도지사과 이번에 당선된 도지사의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만 둘 결심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그의 사표는 반려됐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시스템이 느슨한 것도 문제다. 최근 지방 구단 사장의 비리 혐의가 K리그를 얼룩지게 했다. 구단이 마케팅 행사를 통해 받은 항공권 바우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이어 인턴사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지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프로 축구연맹으로부터도 징계를 받을 처지다.

기업구단의 경우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단장(사장)도 많지만 잠시 왔다가는 곳이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자리의 무게감보다 단기성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을 담은 구단 운영은 먼 나라 얘기다.

스포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그 종목의 위상이 결정된다. 선수단의 역할만으로는 K리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 행정도 함께 커야 한다. 그래서 맨 파워를 강조하는 것이다.

젊고 유능한,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구단 임원이 늘어났으면 한다. 나이 나 경력을 따질 게 아니라 능력 위주의 과감한 발탁을 통해 혁신을 꾀해야 한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행정가를 꾸리는 이영표나 박지성, 그리고 선수 은퇴 이후 꾸준히 공부해온 포레들이 K리그를 위해 헌신했으면 한다. 그게 그들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길이다. 그들이 경험한 선진시스템을 K리그에 접목하는 날은 언제쯤 올까.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선수출신 K리그 사장·단장은?



대구FC 조광래 사장 대전시티즌 김호 사장

선수출신 축구행정가 5명 김호·조광래 등 대표주자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선수출신 구단 사장 또는 단장은 모두 5명이다.

선수과 감독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K리그1 대구FC 조광래 사장은 구단 경영의 수장으로서도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 안양LG(FC서울)와 경남FC에서 감독을 했던 그는 2014년 9월 대구 단장으로 취임했다. 2016년 2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가운데 그 해 대구 구단은 K리그1 승격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에는 K리그1 잔류에도 성공했다. 자신이 추진한 대구축구전용구장도 완성단계에 있다. 대구는 올 시즌 초반 외국인 선수 실패 등으로 고전했지만 최근 안정된 경기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2018아시아월드컵을 통해 최고 스타로 떠오른 골키퍼 조현우 덕분에 관중수도 늘었다.

K리그2 대전시티즌 김호 사장은 지난해 말 선임됐다.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간 대전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용인축구센터 총감독을 맡다가 8년 만에 대표이사로 대전에 컴백했다. 1960~1970년대 국가대표팀의 명 수비수 출신인 김 사장은 1994년 미국월드컵에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했고, 1995년 수원삼성의 창단 감독으로 취임해 K리그 2회 우승, FA컵 1회 우승, 아시아클럽 챔피언십 2회 우승을 이끄는 등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고종수 감독을 영입한 대전은 현재 K리그2에서 8위(6승4무9패)다.

2017년 K리그2 부산아이파크의 책임자로 선임된 최만희 사장은 다양한 경험을 한 축구인이다. 전남기계공고, 중앙대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그는 U-16 대표팀 코치, 1991년 남북단일팀 코치, 국가대표팀 코치 등을 거쳐 전북현대 감독, 수원삼성 2군 감독, 광주FC 감독 등을 거쳤다. 올 시즌 부산의 목표는 지난해 실패한 K리그1 승격이다. 현재 K리그2 3위(7승9무4패)다.

이들 이외에도 기성용(뉴캐슬)의 아버지인 광주FC 김영욱 단장과 여성 심판 출신인 FC안양 임은주 단장도 축구인 출신이다.

최현길 전문기자

‘레전드’ 강만수 유소년육성위원장에...꿈나무 발굴 기대감

V리그 레이더

KOVO, 새 경기운영 집행부 완성 경기실장 문용관·심판실장 김영일 현대캐피탈, AVC컵 대표 훈련 지원

한국배구연맹(KOVO) 조원태 총재 체제의 제2기 경기운영 집행부가 완성됐다. 6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의 경기위원장과 심판위원장을 통합한 경기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영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경기실장으로 문용관 전 KB손해보험 감독을, 심판실장으로 김영일 국제심판을 선임했다. 또 한국배구 100년 대계를 책임질 유소년육성위원장으로 강만수 전 우리카드 감독이 결정됐다. 조원태 총재의 결재도 받았다. 세 사람은 19일 서울 상암동 KOVO 사무실을 방문, 선임인사를 했다.

●한국배구의 레전드 강만수 전 감독의 아래로부터의 헌신

KOVO는 25일 이사회에서 사무국 개편과 함께 조직개편 내용과 인사를 서면으로 보고한 뒤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배구인들의 관심사였던 인선을 놓고 수많은 소문이 나돌았다. 조영호 선임 통합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조언을 듣고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사람



문용관 경기실장 강만수 유소년육성위원장

을 찾기 힘들었다”면서 배구계의 인재풀이 많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강만수 전 감독의 역할이다.

전국의 초등학교를 찾다니며 교장선생님에게 배구단 창단을 권유하고 꿈나무 발굴을 위해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는 등 밑에서부터 헌신하는 자리에 전설의 스타가 백의종군의 자세로 나설 예정이어서 성과를 기대한다.

V리그 사령탑을 거친 뒤 쉬고 계신 많은 감독들도 이번 기회에 유소년 꿈나무 발굴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 풀뿌리 배구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은 “갈수록 선수가 없다. 미래의 재목은 보이지 않고 대부분 학교의 선수들이 살빼기를 위해 배구를 한다. 그나마 이런 선수라도 없으면 팀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타고난 운동감각은 물론이고 체격조건도 필요한 종목의 특성상 어린 학생들에게

배구의 진입장벽은 높다. 이때 TV에서 자주 보면 유명한 감독들이 나서준다면 벽은 낮아질 수도 있다.

유소년 발굴은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배구계에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다. 전북 고창 흥덕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과 즐겁게 지내는 이성희 전 KT&G 감독처럼 많은 V리그 출신 감독들의 아래로부터의 헌신을 기대한다.

●빠박한 훈련지원비 사정을 알고 흔쾌히 손을 내밀어준 현대캐피탈

지금 배구는 국제대회 시즌이다. 남녀 대표팀은 8월 18일부터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V리그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대표팀의 국제대회 호성적은 필요하다. 대표팀 지원에는 한국배구연맹과 대한배구협회 구분이 없다. 모두가 배구발전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20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은 21일 바레인에서 개막한 제19회 아시아청소년남자U-20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강성형 전 KB손해보험 감독이 지휘하는 선수단은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훈련하다 현지로 떠났다. 어린 대표 선수들에게 마음 편히 훈련할 장소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행히 한국 남자배구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열심히 응원을 부탁드린다.

8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대만에서 AVC컵 대회가 열린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는 남자 국가대표 1진이 참가할 수 없어 사실상 2진이 출전한다. 28일 소집되는 AVC컵 대표선수들은 30일부터 천안 현대캐피탈의 훈련장에서 합숙훈련을 한다. 당초 화성에서 훈련할 예정이었는데 현대캐피탈에서 합숙훈련을 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대한배구협회는 12명의 선수와 스태프 등이 대만으로 떠나기 전까지 훈련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 액수는 제대로 된 숙소는 물론이고 식사의 질도 떨어질 것을 걱정한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이 박희상 대표팀 감독에게 함께 훈련하자고 제의했다.

대표팀은 천안 현대캐피탈 훈련장의 코트를 나눠서 쓰고 식사비용은 실비만 내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은 “속소비용을 야근 돈으로 AVC컵 대표팀 선수단이 마음 편히 회식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배려와 인심이 고맙다.

AVC컵 대표팀은 프로선수와 대학생이 중심인 가운데 유일한 신장 2미터를 넘는 인하시대부고의 이상현을 선발했다. 우리 배구의 미래를 내다본 좋은 결정으로 보인다. 실업팀 화성시청의 이정준이 미들블로커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KB손해보험 시절 한때 배구를 포기했다가 실업선수가 됐는데, 박희상 감독이 30세의 늦깎이를 왜 AVC컵 대표로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